

Sermon Notes:

서론: 로마서 1-8 장까지의 전체 구성

7 장 위치에 대한 신학적 논란

7 장을 통해 바울 자신의 연약함과 내적갈등을 보여줌

본론: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

1. 율법에 대한 비유 (1-3 절): 남녀의 결혼 관계로 비유

가. 남편 = 율법, 여인 = 성도

나. 여인이 남편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: 남편의 죽음

다. 율법의 지배를 받아 자유가 없는 삶

2. 율법의 적용 (4-6 절)

가. 죄인이 법에서 해방되는 길: 죽음과 공소시효

나. 사람이 죽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길: 예수 믿음

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(히 10:4, 마 5:17-18)

다.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

연합의 목적: 열매를 맺도록 함 (4 절, 요 10:10)

3. 율법의 기능 (7 절)

가. 율법이 악한가? -> 절대로 그럴 수 없다!

나. 죄를 정의함, 거룩함 (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)

다. 문제: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 -> 보완: 제사제도

희생제물이 되신 예수: 한 번으로 해결 (히 9:12)

여전히 역사하는 율법: 육신 때문에 죄 아래 팔림

성령충만 받아야,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누려야

결론: 죄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

되살림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

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열매맺는 삶을 사십시다.

암송구절: 로마서 7 장 6 절 (회복역)

‘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

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낚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

새로움으로 섬깁니다’

Memo/Reflection:

1.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으로 생각하고 반발, 억지가 없는가?

2.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가?

3. 어떻게 하면 죄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?